

돼지를 통해 본 제주도 당신(堂神)의 식성 갈등

강 권 용*

1. 머리말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당들은 다양한 신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당신본풀이’라 하는데 신들이 마을의 당신으로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곶판에서 심방들에 의해 불려진다. 한라산에서 솟아나거나 바다를 건너 들어온 신들은 제주도 산야를 떠돌다가 마음에 드는 마을을 정해 들어온다. 마을에 들어온 신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마을사람들에게 홍수를 내거나 가뭄이 들게 하는 등의 자연현상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신의 존재를 알게된 마을사람들은 신을 찾아 좌정처로 인도하고 모신다. 좌정한 신들은 사람들에게 제일(祭日)에 음식을 바칠 것을 요구하며 음식의 종류를 정해준다. 요구하는 음식은 쌀밥 등의 곡물과 돼지고기 등의 육류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미식신과 육식신으로 구분된다.

한 마을의 부부신 가운데 미식과 육식의 식성 차이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를 ‘당신의 식성 갈등’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집단 내에 부부신으로 같이 모셔지는 신들이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 단골들은 이 신들을 위해 제일을 따로 하거나 다른 장소에 모시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성 갈등의 중심에 돼지라는 특정한 동물이 개입되어 있어 돼지에 대한 문화사적 분석도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에 대해 학자들은 송당본풀이를 근거로 수렵생활을 통한 육식신과 농경생활을 통한 미식신과의 갈등으로 논하였다.¹⁾ 진성기는 육식신과 미식신을 흑파(黑派)와 백파(白派)로 구별하였다. 이들이 식성으로 인해 살림을 나누는 예가 많다고 하면서 백파는 길례(吉禮)와 선사(善事)를, 흑파는 흉례(凶禮)와 악사(惡事)를 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파가 인간을 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성능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하여 논리적 모순이 보인다. 또한 흑파의 제물이 백파의 곡식물예다 돼지고기를 덧붙태어 차려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식과 육식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또 다른 증거여서 진성기의 주장에 논리적 타당성이 의심된다.²⁾

현용준은 송당본풀이에서 여신인 백주씨가 농사짓기를 권한 것은 현존 미개족과 같이 여농남수렵(女農男狩獵)의 생산경제 형태 내지 농경경제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일 것이고 여신을 외래

*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1)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장주근, 1995,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2) 진성기, 1991, 「기타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819~820쪽.

신으로 한 것은 농경법의 전래와 후대의 사대사상적 표현인 듯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신이 남의 소를 잡아먹은 것을 부인이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필시 사유제가 움터가는 단계일 것이라고 하였다.³⁾ 그러나 여농남수렵의 생산경제 형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신이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지모신앙의 사고에 의한 것이지 농경민, 수렵민의 명확한 구분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현용준은 돼지털을 먹게 되면서 일곱 쌍둥이를 낳는 이유가 돼지에 대한 터부(taboo)와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돼지털과의 접촉으로 인해 일곱 쌍둥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 돼지와 혈연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돼지를 조상으로 숭배함으로써 돼지에 대한 금기가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⁴⁾ 그러나 당신본풀이들을 살펴보면 돼지는 숭배보다는 혐오의 대상과 보다 더 깊은 관련이 있으며 돼지털과 접촉한 여신들이 돼지를 죽여 제물로 받고 있어 조상으로 숭배한다는 논리와 배치된다. 따라서 돼지에 대한 터부와 혈연관계를 관련시키는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높다.

장주근은 현용준의 글을 인용해 미식신을 청결한 상위 신으로 여기는 것은 문화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사적인 반영성과, 종교 관념에 상상성 등을 아울러서 투영시키고 있다고 하였다.⁵⁾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보면 문화사적인 측면을 거론한 점에서 맞는 듯 하나 식성 갈등의 예가 송당본풀이에 지나치게 한정적이며 단지 육식과 미식간의 갈등에만 매몰된 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성 갈등의 중심에 있는 돼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식성 갈등 본풀이의 분포 양상

제주도 무속의 당본풀이는 부부신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제주도 산야를 각자 돌아다니던 남녀신이 우연히 만나 결합하여 한 마을에 좌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녀신들은 식성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다. 급기야는 이혼을 하거나 서로 다른 곳에 좌정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도 무속에 나타난 식성갈등을 일으키는 당신의 분포를 알아보고 식성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신을 같이 모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식성 갈등 당신의 분포

통상 당신의 식성을 대부분 육식과 미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당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여신은 농경생활을 하며 부산물인 곡물을 제물로 받고 있어 깨끗하며 상위의 신으로 인식된다. 남신은 수렵생활을 하며 부산물인 육류를 먹으며 특히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고 있어 더럽고 하위의 신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송당본풀이를

3) 현용준, 앞의 책, 117쪽.

4) 현용준, 앞의 책, 125~126쪽.

5) 장주근, 1995,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41쪽.

중심으로 도출한 것이어서 제주도 본풀이의 보편적 특징이라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채록되어진 당신본풀이 중에서 신들의 식성 갈등 모티프가 등장하는 자료 전반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다음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과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나오는 당신들의 식성 갈등을 조사한 표이다. 제주시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살펴보았다.

지 역 (당 명)	신 명	육 식 성 별		생 활		임신 관련성	육식적 특징	돼 지 제 물	식성갈등에 의한 별처좌정
		남신	여신	수렵 채집	농경				
용담동 내왓당	박름웃뜨			.	.	○		.	○
	군농뜨		○	.	.		돼지털을 그을려 냄새 맡음	?	
용담동 궁 당	상수대왕			.	.	○		.	○
	정절상군농		○	.	.		돼지털을 그을려 냄새 맡음	○	



월평동 다라곳당	산신백관	○		○	·	×	원래 육식	?	○	
	애기맛을			·	·					·
외도동 본향당	짐씨할오방			·	·	×		·	○	
	송씨할망		○	·	·		고기 육식에 돼지를 먹음	?		
송당리 본향당	소천국	○		○		×	남의 소를 잡아먹음	·	○	
	백주떡				○			·		
세화리 본향당	천즈떡			·	·	×		·	○	
	금상장수	○		·	·		원래 육식	○		
	백주떡			·	·			·		
월정리 본향당	태호떡			○		○		·	○	
	서당할망		○	○			돼지털을 그을려 냄새 맡음	○		
평대리 본향당	신성떡			·	·	○		·	○	
	수대깃할망		○	·	·		잔치집에서 얻어먹음	○		
김녕리 괴네깃당	괴네깃떡	○		·	·	×	원래 육식	○	×	
행원리 남당	중이떡	○		·	·	×	잔치집에서 얻어먹음	○	×	
종달리 본향당	백주노산주	○		○		○		×	×	
	일리중주		○	○			돼지털을 그을려 냄새 맡음	×		
신평리 본향당	개로육서떡			·	·	○		·	○	
	큰부인		○	·	·		돼지 발자국 물을 먹음	?		
토산리 일렛당	보람운님	○		·	·	○		·	○	
	신중부인		○	○			돼지 발자국 물을먹음	?		
보목리 조노깃당	조노기한집			·	·	×		·	○	
	조노기한집허씨		○	·	·		고기 육식에 돼지를 먹음	?		
판포리 날갯당	오일보향 정씨할오방			·	·	○	제육금지	×	○	
	축일당짐씨할망		○	·	·		돼지털을 그을려 냄새 맡음	?		
금릉리 큰당	술일할오방님	○		·	·	×	돼지, 술 먹음	○	○	
	장씨할망			·	·					
하귀리 개할망당	개할오방	○		·	·	×	돼지 먹음	?	○	
	개할망			·	·					
동귀리 본향당	짐씨할오방	○		·	·	×	돼지 먹음	○	○	
	송씨할망			·	·					
어음리 비매닛당	동산당 한집님			·	·	×		·	○	
	비매닛할망		○	·	·		돼지 발자국의 물을 먹음	?		
금덕리 본향당	선씨영감			·	·	×		·	○	
	허씨할망		○	·	·		당신이 되기 전에 돼지를 먹음	?		

<표 1> 제주도 본향당 본풀이에 나오는 식성 갈등 본향신 분포

위의 자료들을 보면 제주도의 많은 당 중에서 식성 갈등이 나타나는 당은 모두 19 개로 파악되고 있다.⁶⁾ 그 중에서 김녕리의 괴네깃떡과 행원리의 중이떡만이 부부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17 개의 당은 부부신으로 나타나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이 부부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육식과 미식의 갈등이 부부로 상정된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이성이 나오는 본풀이들 -식성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는 본풀이들 모두-이 구조적으로 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의 표를 보면 육식을 하는 성은 여신이 12신, 남신이 10신으로, 남신이나 여신의 특정한 성별의 신만이 육식을 한다기보다 남녀신 모두 고른 육식성을 보여주고 있다.

6) 진성기와 현용준의 두 자료집은 제주도의 모든 당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괴네깃당 본풀이는 신들간의 식성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나 대표적인 육식신이기에 때문에 포함하였다.

한편 신들의 생활은 대부분의 본풀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며 확연하게 수렵·채집과 농경의 구분이 성별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는 후대로 전승되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탈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본풀이 내용상 그 중요성이나 필연성이 약해서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신의 식성과 신의 좌정 이전의 생활형태 즉, 수렵·채집·농경이 그다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정리와 종달리 본향당은 남녀신 모두 수렵·채집을 하였으면서도 현재 육식에 의한 식성 갈등을 보이고 있어 생활의 차이가 식성 갈등의 요인이라는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임신이 육식으로 이어지는 당신본풀이는 12곳 중 8곳에서 나타난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67%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육식성을 보이는 대부분의 여신이 임신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⁷⁾

신들의 육식 대상을 보면 송당리를 제외하고는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 돼지고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육식신들에게 바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돼지가 공양물로서 절대적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제주도의 자연적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육식적 특징에 있어서 남신들은 돼지를 직접 먹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여신들은 돼지털을 그 올려 냄새맡거나 돼지 발자국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으로 간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는 후대적인 사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여신이 직접 돼지를 먹는다는 것이 여성답지 못하다는 사고가 절충되면서 간접 접촉의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다.

식성 갈등 신들의 별처 좌정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김녕·행원·종달본향당을 제외하고 모두 각각 따로 좌정하고 있다. 좌정 위치를 정해주는 것은 대부분이 미식신으로 단골들이 미식을 우위에 두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좌정 위치를 보면 미식신은 바람 위로 육식신은 바람 아래로 좌정한다. 미식신이 바람 위에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돼지고기 냄새를 맡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미식신이 돼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 의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식성 갈등이 나타난 제주도 당본풀이 분포양상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육식신이 남신, 미식신이 여신이라는 구도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신의 육식이 임신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돼지라는 특정 동물을 식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향당의 근원이며 대표적인 식성 갈등 본풀이로 알고 있는 송당본풀이의 소천국과 백주떡의 갈등 원인이 식성 갈등 때문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송당본풀이에 대한 갈등 원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백주떡과 소천국의 갈등 원인

송당본향당은 제주도 본향당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풀이 사설에 백주떡과 소천국의

7) 임신 시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이 제주도 각지로 흩어져 각 마을의 본향신들이 되었다는 부분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각 마을의 본향당본풀이가 송당본향당본풀이 내용을 중심에 놓는 송당계 무속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심방들 또한 송당본향당을 제주 무속의 근원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송당본향당본풀이의 중심내용은 백주뜨와 소천국의 결합과 식성 갈등 그리고 이혼에 관한 것이다. 화소는 아래와 같다

- ① 백주뜨와 소천국의 결합
- ② 소천국의 수렵
- ③ 백주뜨의 권유로 소천국이 밭을 갈
- ④ 소천국이 배고파 자기 소와 남의 소를 잡아먹음
- ⑤ 백주뜨가 소천국이 남의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이혼함

송당본풀이의 화소를 보면 백주뜨와 소천국의 갈등 원인이 소천국이 육식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표면상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백주뜨는 소천국이 남의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살림을 나누자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갈등의 원인으로 주창되어온 소천국의 육식이 갈등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백주뜨가 이혼의 이유로 내세운 소천국이 남의 소를 잡아먹은 행위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타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취했다는 것이다.⁸⁾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에 사유재산에 대한 사고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가 이 본풀이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밭가는 소를 죽였다는 것이다. 농경을 위해서 소는 가장 중요한 가축이다. 그런데 소천국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밭가는 소를 죽였다. 이것은 소천국의 육식 문제보다는 농경의 수단인 소를 죽였다는 것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기존의 송당본풀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농경과 수렵과의 갈등을 말하면서 단지 수렵과 농경의 부산물 섭취에 대해 육식이나 미식이나에 관심을 두었지, 가장 중요한 농경을 할 수 있는 소를 죽여 버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소는 농경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⁹⁾ 밭을 갈거나 짐을 옮기는 농사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배설물을 이용한 연료 사용, 가죽과 고기, 뽕 등 소는 농경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존재로 인간 노동력 몇 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팔장(八場)’이란 것을 만들어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소를 모아다 밭을 밟게 해야만 싹이 틀 수 있었다 하니,¹⁰⁾ 조선시대 이전에 소의 중요성은 더욱더 컸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소를 죽인다는 것은 농경생활에 대한 심각한 거부로 보여진다. 결국 본풀이의 갈

8) 현용준, 앞의 책, 125~126쪽.

9) 우경의 시작이 곧 농경생활의 시작은 아니다. 농경은 그 이전에 있었다.

10) 남도영, 2001, 「우목장」,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502쪽.

등이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가 농경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농경 생활에 있어서 ‘소’의 중요성은 피네깃뜨본풀이에도 잘 나타나 있다. 어릴 적 섬 밖으로 방출되었다가 성인이 되어 돌아온 피네깃뜨는 부모를 쫓아내고 김녕 피네깃굴에 좌정한 다. 단골들에게 피네깃뜨는 처음에 제물로 소를 요구한다. 이에 단골들은 소를 바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집에서 키운 돼지를 바치고자 하여 결국 돼지를 바치게 된다. 왜 피네깃뜨는 소를 제물로 요구하게 되었을까? 소는 나라 제사에서나 올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즉 피네깃뜨는 당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 모신 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소를 제물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를 짐작케 한다.¹¹⁾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골들은 소를 바칠 수 없다. 농경을 하기 위해선 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¹²⁾

이 두 개의 본풀이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식과 미식의 갈등, 단지 무엇을 먹고 바치느냐의 문제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내의 문화사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성이 다른 신을 한 마을에서 같이 모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다. 갈등의 신 같이 모시기

한 마을에서 미식신과 육식신이 공존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다신적 신앙체계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무속에서 심방들은 1만 8천의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다. 최고로 높은 옥황상제에서 제일 낮은 놀굽지신¹³⁾까지의 신들은 위계가 뚜렷하면서도 서로의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신적 사고는 마을을 관할하는 당신의 구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 중 본향당신이 가장 중심적인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당신들은 보통 생업과 육아 등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신이 완벽한 역할을 하는 유일신에게는 미식과 육식은 그 신앙의 고유한 교리에 따라 결정되어 이어지지만, 한 마을에 여러 명의 신들을 모시고 있는 다신적 체계인 제주도에서는 각 신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신앙민들에게 신앙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신들의 제일과 제물은 차이가 난다. 육식을 원하는 신은 고기를, 미식을 원하는 신은 쌀을 제물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의 당을 들어 살펴보겠다. 온평리에는 아홉 개의 당이 있

11) 소를 바쳤던 집단이 후대에 이르러 권력이 와해되면서 이제 피네깃뜨가 평이한 당신으로 전략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소의 생육 기간은 조숙종은 생후 14~18개월, 만숙종은 18~24개월이면 번식에 이용할 수 있으며 1마리를 낳는다. 돼지는 생후 8~10개월이면 가능하며 보통 6~12마리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소가 돼지에 비해 생육기간이 길며 번식력도 떨어진다. 이는 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공급의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골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기를 제물로 쓸 수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농경에 가장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돼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13) 높은 탈곡한 짚을 쌓아 올린 가리를 말하며, 굽은 제일 밑을 의미한다. 즉 가리의 맨 밑바닥을 담당하는 신이다.

다. 그 당들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¹⁴⁾

순서	당 명	기 능	제 물
1	진동산 본향한집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차지	소고기
2	서근괘당	산육, 치병	돼지고기 금지, 메2기
3	넛빌레도 돛당	두통, 돛당에 걸린 환자	이바지꺾시 돼지고기
4	들갯동산 현씨일월당	광증 치병	돼지고기 금지
5	들갯동산 들개할망당	해녀, 어부 관장	고동 껍데기
6	들갯동산 여드렛당	피부병과 아기 아플 때	돼지고기 금지, 메2기
7	용머리 일뤼당	아기 피부병 및 허물 쓸어냄	고동 껍데기
8	돌혹 돛당	두통, 돛당에 걸린 환자	이바지꺾시 돼지고기
9	묵은이열운이당	피부병과 아기 아플 때	돼지고기 금지, 메2기

〈표 2〉 성산을 온평리의 당 분포

아홉 개의 당 중 본향당인 진동산 본향한집이 마을 사람의 출생과 죽음 등을 맡는 중심에 있고, 산육과 관련된 당이 서근괘당·들갯동산 여드렛당·용머리 일뤼당·묵은이열운이당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넛빌레도 돛당과 돌혹 돛당이 두통이나 돛당에 걸린 환자를 담당하며, 들갯 동산 들개할망당이 해녀와 어부를 관장하고 있다.

위 당신들의 제물을 보면 크게 육식과 미식으로 나뉘며 바닷가에 위치한 당은 수산물의 상징인 고동 껍데기를 받고 있다. 육식을 하는 당은 본향당과 넛빌레도 돛당·돌혹 돛당이며 미식을 하는 당은 돼지고기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나타내는데 서근괘당·들갯동산 여드렛당·묵은이열운이당이다.

육식을 하는 당 중 본향당은 전날 포제 때 잡은 소고기 중 다리를 하나 올린다. 돛당인 넛빌레도 돛당과 돌혹 돛당에는 이바지꺾시라 하여 마을에 잔치가 있어 돼지를 잡을 경우 제일에 상관 없이 이 신을 위해 잡은 돼지고기의 일부를 떼내어 고사를 지낸다. 미식을 하는 서근괘당·들갯동산 여드렛당·묵은이열운이당에는 2~3개의 공기에 쌀밥을 지어 바치며 보통 당에 가기 일 주일 전부터 돼지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마을에서 다양한 신들이 서로 반대의 식성을 갖고 있더라도 이들 신들은 인간 삶에서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민의 종교적 필요에 의해 신앙체로 모셔진다. 그래도 본향신은 마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신으로 신앙민들에게 최상의 신격체로 대우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신도 신앙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민들은 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마을에 각기 좌정되어 있는 직능적 신들을 찾아가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다.

본향신이 육식을 하지 않는 신이면 며칠 간 고기를 먹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본향당의 경우는 본향당신인 개로육스뜨가 돼지고기를 부정한다. 이 당의 신년과세제 제일이 음력 정월 초이틀이라 정월 초하루인 설날 상에는 돼지고기를 올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음식 준비와 음복 과정에서 돼지고기를 접했다가는 다음 날 본향당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14) 남제주군, 1996, 「신앙민속유적」,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326~332쪽.

것이다. 하지만 추석에는 돼지고기를 올린다. 그 근간에는 당에서의 무속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세시풍속이 무속적 관념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기 특히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가 없는 당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여러 당이 한 마을에 있는 경우 이런 신년과세제 같은 무속제일에는 본향당이 중심이기 때문에 단골들은 이에 따르지만, 이를 제외한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당신의 식성에 맞게 변화를 주고 있어 절대 금기가 아닌 부분적 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제주도의 돼지 역할과 금기

제주도의 토종 돼지는 인분을 먹여 키우는 독특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많이 알려져 있다. 지금은 관광지와 몇몇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통시'라는 변소에서 키워지는 돼지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당시에 돼지는 농가의 중요한 거름자원이며 부수입원으로 한 마리 이상 키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던 돼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연원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인 무속에서도 제물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단골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제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돼지가 어떻게 제주민의 삶에 들어왔고 어떤 이유에서 무속의례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가. 멧돼지에서 집돼지로의 변화

돼지는 선사시대부터 제주유민들의 식량자원으로 사용되었다. 괴네깃당이 예전에 있었다는 괴네깃굴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굴 안에서 발견된 뼈 중에서 90%가 돼지뼈로 멧돼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돼지들을 의례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두개골이 절단된 형태라 하였다.¹⁵⁾ 이는 괴네깃딴 신앙의 절대적 증거품으로서 다른 유물 파편들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고 있어 제주도의 촌락 형성 시기의 유추뿐만 아니라 괴네깃굴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제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돼지가 제물로 이용되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문헌에도 제주유민들이 돼지를 이용했음을 말하는 기록이 발견된다.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鬚頰,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¹⁶⁾

『후한서』가 기술한 역사는 기원 후 25~220년으로 당시 중국 주변국들의 모습 또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제주도 원주민들이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기술한 것은 일찍이 목축이 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멧돼지를 키움에 있어서 인위적이기보다는 부락 영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번식, 성장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인위적인 사료를 줄 수 있는 많은 부산물이 생기는 것도 아

15)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녕리 퀘네기동굴 유적』, 대영인쇄사.

지금도 김녕리에서 돛제를 할 때 괴네깃딴에게 돼지의 머릿골을 바치기 위해 돼지의 두개골을 날카로운 나대로 내리쳐 구멍을 낸다.

16) 『後漢書』「東夷列傳」韓條

니며 있더라도 자연에서 얻는 나무 열매나 뿌리 등이 훨씬 돼지 사육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단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 신경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멧돼지가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상황에서 괴네깃굴에서 다량의 돼지뼈들이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타 동물의 뼈가 소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타 동물에 비해 돼지고기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돼지가 제주유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절대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든 주된 식용 대상물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게끔 되어있다. 돼지가 도민들에게 잘 활용되어진 이유도 공급이 원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효종 3년(1652) 이원진(李元鎭)이 쓴 『탐라지』에 보면 저권(猪圈)을 설치하여 잡돼지를 키웠으나 여위고 작아서 산돼지의 비대함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산돼지는 마음대로 풀과 나무뿌리·나무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잡돼지는 기르면서 부족하게 먹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이때까지도 멧돼지가 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비해 크기나 영양 수준도 훨씬 나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돼지가 사육되었다는 사실은 멧돼지가 이미 가축으로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멧돼지들이 어떻게 집에서 키워지게 되었을까? 이는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농경은 화전으로 시작되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면서 부근의 토지가 경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경지는 매년 경작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지를 계속하여 확보해야만 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의 확보는 내륙을 향한 경지의 수평적 확장과 함께 수직적 확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거주 공간의 확대를 위한 개척의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시대 이전에 시작되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중산간 지대의 개척은 대부분 화전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전 시대에 광범하게 무성했던 삼림이 벌채되고 넓은 초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¹⁷⁾

조선시대에도 화전이 널리 행해졌다. 제주도 출신으로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냈던 고득중(高得宗)의 상서를 보면

“무식한 무리들이 많이들 불을 놓아 밭을 갈므로, 만일 이런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땅의 기운을 태워서 산에는 풀과 나무가 없다”¹⁸⁾

고 하였다. 위 문헌을 통해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서 화전이 행해져 삼림 훼손이 심각해지자 상서를 올려 화전을 막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지부의 벼농사와는 달리 제주도의 농지는 화산토로서 아주 척박한 토질이다. 그리고 많은 비는 그나마 토지의 영양분을 휩쓸어가 한 번 화전을 하면 10년이 넘는 휴경기를 가져야 한다. 즉 낮은 토지생산성은 매해 더 많은 지역을 불태워 새로운 농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7) 남도영, 「역사적 배경과 입지 조건」, 앞의 책, 37쪽.

18) 且無識之類數多, 縱火耕田, 若此不禁, 則地氣焦爛無草木(『世宗實錄』 64, 世宗 16年 6月 乙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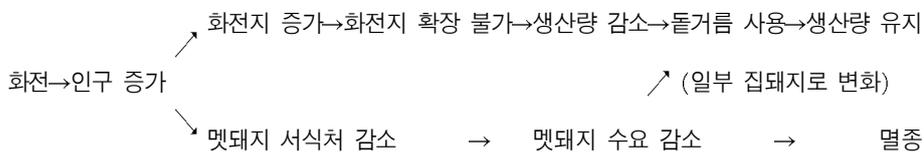
이런 화전의 급격한 증가는 멧돼지의 서식처를 잠식하여 멧돼지의 수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화전 또한 절대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토지에서만 농사를 짓게 되면서 토지생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제주민들은 인구압에 의한 농지의 증가와 멧돼지의 수효 감소, 화전토의 확장 불가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비법이 절실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멧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방법이었다.

돼지 사육처를 제주도에서는 통시라고 부른다. 대체로 안채 좌우 바깥벽 어느 한 곳에 설치되는 돌통시는 3평 내외의 면적을 약 2m 깊이로 파서 수시로 보리짚 등을 깔아주고 부엌이나 농작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이고 쇠막(외양간)에서 나오는 쇠똥까지도 수시로 집어 넣어 돼지 자신의 배설물과 뒤섞어 완전 발효되도록 하는 퇴비 생산 공간이다. 돼지 한 마리는 사람 500명의 인분에 해당하는 퇴비 생산능력을 갖는다고 한다. 돌거름의 생산과 이용은 한반도 지역에서처럼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개똥을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되게 저비용 고효율의 농법으로 특히 보리농사에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제주 도민들의 생명줄이었다.¹⁹⁾

이렇게 통시에서 돼지의 똥과 그리고 수시로 오는 비, 온난한 기온이 합쳐진 유기물이 풍부한 거름은 집집마다 생산되어 제주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가 된다.

통시에서 생산된 거름을 돌거름이라 하여 우렁으로 퍼냈다가 가을에 보리 농사를 위해 밭에 뿌려지게 된다. 제주도의 화산회토는 질소, 칼륨 그리고 특히 인이 부족한데, 한반도에서처럼 잡초에 의한 두엄은 거의 만들지 않고 대부분 가축의 배설물에서 얻어지는 퇴비로 보충하였다.²⁰⁾ 돌거름은 최고의 거름으로서 윤작에 의한 토지생산성의 감소를 만회시켰던 것이다. 즉 더이상 화전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생산성의 감소를 멧돼지를 가축화하면서 발생한 배설물로 만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생식지의 감소로 인해 줄어든 멧돼지의 육류 공급원으로서의 고유 기능까지 확보할 수 있던 것이다. 이런 멧돼지의 집돼지화는 본격적인 농경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풍부한 육류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²¹⁾ 질 좋은 거름의 생산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돼지 사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²⁾ 아래의 표는 위의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표 3〉 화전의 확장에 의한 멧돼지에서 집돼지로의 변화 과정

19) 송성대, 2001, 「제4장 영등할망이 낳은 대문무(大門蕪)」,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각, 478쪽.
 20) 송성대, 앞의 책, 479쪽.
 21) 18세기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멧돼지가 적잖이 잡히고 있으나 20세기 이후엔 완전히 멸종하게 되었다.
 22) 말과 소는 낮에 방목지에서 풀을 먹이다가 일정한 밭에 몰아 밤새 배설물을 모아두는 방법을 취하긴 했지만 일부의 부유한 계층에 한한 것이다.

나. 돼지고기 분육(分肉) 담당자 도감(刀監)

앞서 살핀 기름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 농가에 절대적 기여를 하는 돼지는 육류의 공급 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집에서 키운 돼지는 집안 대사(大事) 때 사용되는데 제주도에 는 특이하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분배하는 자가 있어 주목된다. 이 장에서 는 돼지고기 분배자의 역할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잔치나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곳이 많다. 잔치는 보통 3일에 걸쳐 하는데 첫날 남자들이 냇가나 바다에서 돼지를 잡고 여자들은 부식을 준비한다. 둘째 날을 ‘가문잔치라 하여 ‘먹는 날’이라 부른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가장 편한 시간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고 논다. 마지막 날엔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만이 결혼식에 참석한다. 장례는 보통 3일장 위주로 치러진다.

두 의례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음식이 대량으로 준비된다. 이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돼지고기를 준비하는 일이다. 생활이 넉넉지 못한 과거에는 겨우 한 마리 정도를 잡아 사용하였지만 요즘은 7, 8마리를 삶는 경우도 있다. 삶은 고기는 다시 식혀진 후 ‘도감’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간다. 도감이 하는 일은 돼지고기를 고르게 분육(分肉)하는 일로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예전에 도감의 직무는 마을에서 허드렛일을 해주는 하층민이 주로 담당했으며 잔칫집의 부모가 직접 도감 일을 부탁하였다. 도감은 돼지고기를 손님상에 똑같이 분배하는데 보통 한 접시에 돼지고기 세 점에 순대 한 점으로, 고기도 살과 기름이 골고루 섞이게 한다. 상을 당한 집에서도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대접한다

이렇게 공동 참여하는 일생의례에서 도감은 고기 분배 담당자의 일을 맡고 있다. 이 일을 하층민이 맡는 것은 계급적 인식에 의한 것이지 도감이란 역할 자체의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고기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원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특정인을 정하여 분배의 일원화를 꾀한 것이다.

이런 고기 분배의 모습은 구좌읍 지역의 돛제에서도 나타난다. 지금은 돛제 과정에서 신들에게 올릴 고기를 아홉에서 열두 개의 그릇에 나누거나 부위별로 잘라낼 때 굿을 하는 주인이 돼지고기를 다루지만 예전에는 도감을 불러 전문적으로 고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제의가 끝나면 이웃들이 모여 희생제물을 나눠먹는다. 그들은 다른 집에서 돛제를 했을 경우 돛제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분배의 과정에는 꼭 참석한다. 돛제 과정은 가정의 민감한 일들이 불려지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분배의 과정에는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돛제가 마을 공동체로서 기능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다른 집의 돛제 고기를 먹는 것을 부조(扶助)의 관념으로 보고 있어 집단적 행위가 개인적 의무의 행위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단적으로 제의가 이루어지면 것처럼 고기를 분육하는 자가 있어서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눠졌을 것이다. 피네깃굴에서 나온 다량의 돼지뼈가 이를 증명한다. 이런 고기 분육의 과정은 동물의 고기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이 고기를 이웃과 친족을 하나로 묶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²³⁾

따라서 돼지고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도감은 근원적으로 제의에서 고기를 분배하던 제사

23) 마빈 해리스, 2002, 「고기를 밝히는 사람들」,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31쪽.

장 같은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념은 현재 결혼이나 장례 같은 의례에서 많은 인원에게 돼지고기를 고르게 분배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통과의례와 무속의례에서 보이는 돼지고기에 대한 분명한 분배 행위는 ‘도감’이라는 역할을 맡은 이에 의해 줄곧 행해졌으며 일부에서는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만을 분배하는 모습은 돼지고기가 제주도민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 돼지고기 금기와 신앙의 변화

거름의 생산과 육류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돼지가 dot제를 제외한 다른 무속의례에서 금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현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대상이 신앙에서는 부정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속에서 돼지가 왜 금기의 대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신들이 미식을 하는 신에 비해 왜 하등의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중동지역이다. 이 곳에서 돼지고기는 먹는 것은 물론 만져서도 안되는 금기의 대상물이다. 그렇다면 이 곳은 어떤 이유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종교적 금기가 생성된 것인가?

일례로 구약성경을 살펴보자. 구약성경은 신앙서이기 전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말하는 역사서이기도 하다. 성경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어야 할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길짐승·날짐승뿐만 아니라 곤충·어류에 이르기까지 식용여부에 대해 상세히 가부를 정하고 있다. 그 중 길짐승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24)

라 하였다.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목민인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소와 양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젖과 고기·가죽·배설물 등을 유목민들에게 요긴하게 제공하여 언제나 곁에 두고 생활한다. 반면에 부정하여 먹지 말아야 하는 길짐승으로는 약대·사반·토끼·돼지 등이다. 돼지가 금지의 동물이 된 이유를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25)

하였다. 즉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되는 길짐승이 되었다. 단지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신앙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²⁶⁾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닌 식량자원에 관한

24) 「레위기」 11장 2절

25) 「레위기」 11장 7~8절

26) 약대·사반·토끼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다.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일까?

돼지는 고기의 공급원으로서 경쟁 상대가 없을 만큼 훌륭하다. 그리고 전체 동물세계에서 돼지고기는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해낸다. 한 마리의 돼지에게 45킬로그램의 사료를 먹이면 약 9킬로그램의 고기를 생산한다. 그러나 소는 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3킬로그램의 고기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식품으로서 돼지고기가 칼로리당 생산하는 칼로리 면에서도 돼지는 소보다 3배 이상 효율적이며, 닭고기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이다. 그러나 돼지의 서식처는 제한적이다. 돼지는 본질적으로 숲이나 강둑이나 습지대 가장자리에서나 살 수 있는 짐승이다. 생리적으로 돼지는 외부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고는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고온과 태양의 직사광선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땀을 흘릴 수도 없다. 서식지인 자연의 습속에서 돼지는 돼지감자, 나무뿌리,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과일과 견과류를 먹고 산다. 그러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거친 풀과 나뭇잎 외에는 자랄 수 있는 것들이 없기에 심각하게 돼지의 먹이감에 제한을 준다.²⁷⁾

중동지역의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관점에서 제주도 당분풀이에서 나타나는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 현상이 설명 가능하다고 여겨진다.²⁸⁾

제주도는 돼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온난하고 다습한 기후와 온대림의 서식지는 돼지가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작지 확보로 인한 원시림의 파괴는 중산간 지대를 넓은 초지로 바꾸어 돼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한라산의 원시림 지역인 ‘곶’으로 한정지었다. 따라서 해안가 민가에서 돼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은 일이다. 이는 중동에서 돼지를 사육치 못하여 실생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은 생활 전반에 대해 돼지고기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보인 반면 제주도에서는 신앙에서만 금지를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돼지고기가 제주도에서는 집돼지로 키워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멧돼지가 잡히지 않지만 집에서 키우고 있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동지역은 야지(野地)는 물론 집에서조차 돼지를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사육 가능성의 차이는 신앙생활에서의 금기가 상통하더라도 두 지역의 일상생활까지 공급력이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전면적 금기가 아닌 부분적 금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앙의 파급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대상물을 조금이나마 이용한다면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돼지가 집에서 키워지고 있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는 왜 생긴 것일까?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는 돼지를 항상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집에서 키우고 있다지만 언제든지 돼지고기를 섭취할 순 없다. 농산물을 키우기 위한 거름을 생산하는 동물로 돼지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농사를 통한 농작물의 섭취가 돼지고기

27) 마빈 해리스, 2000, 「육식 금기」, 『식인과 제왕』, 한길사, 212~213쪽.

28) 물론 자연환경이나 음식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돼지고기 금기라는 단일명제를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다.

를 먹음으로써 얻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돼지에서 생산된 거름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여기에서 얻는 수확물을 섭취하는 것이 삶을 이어가는데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육식신들이 미식신에 비해 하등의 대접을 받는 것도 돼지고기를 항상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능한 고기가 돼지뿐인데 이를 계속 바쳐야 한다는 것은 신앙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산림이 울창하여 야생 돼지가 풍부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화전으로 인한 산림의 파괴로 인해 야생돼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집돼지로 대처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돼지는 식성이 인간과 같기에 갈등을 유발하는 가축으로서 1마리 이상을 키울 수가 없다. 그리고 제주도와 같이 농사의 부산물이 거의 없는 땅에서 이를 충당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득은 크고 비용은 적었으나 날이 갈수록 비용이 커지는 동물은 초자연적인 금지의 주요 대상이 된다.²⁹⁾ 따라서 신앙에서 대우받던 육식신들은 더러운 신으로 강등되어지게 된 것이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제주도 무속에서 당신들의 식성 갈등 원인과 돼지고기 부분 금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식성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송당본풀이 연구에 집중되던 방식을 탈피하여 문헌에 나와 있는 제주도 전역의 당본풀이를 살펴보았다. 문헌에 있는 당본풀이를 살펴본 결과 19개 당본풀이에 식성 갈등 화소가 있으며 기존의 남신은 육식, 여신은 미식을 한다는 관념이 올바르게 맞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신의 육식은 임신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돼지고기가 식성 갈등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송당본풀이의 백주떡과 소천국의 갈등은 단지 두 신이 농경과 수렵의 부산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한 것이 아니라 농경의 상징인 소에 대한 관념의 차이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지닌 신들을 한 마을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언뜻 보기엔 갈등의 요소가 내재된 두 신을 같이 모신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단골들은 당신의 제일과 좌정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피해갔다. 단골들이 갈등의 신을 같이 모실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신들이 단골들의 삶의 부분적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신의 기능이 한정적이라 단골들은 여러 신들을 한 마을에 같이 모시며 필요에 따라 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도에 돼지가 어떠한 위치 변화를 보였으며 무속에서 어떻게 금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멧돼지는 선사시대부터 식용으로 사용되던 동물로써 다른 동물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야생에서 길러지던 돼지는 제주도의 화전 농경과 인구의 증가 생산량 감소의 상황에 돼지 거름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집의 통시에서 길러지는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육류의

29) 마빈 해리스, 2000, 앞의 책, 231쪽.

지속적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게 되었다.

제주민과 가까워진 돼지는 일생의례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도감(刀監)이란 돼지고기 분육자에 의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지고 있다. 도감의 모습은 일생의례뿐만 아니라 무속의례인 똯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똯제는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된 무속의례로 도감과 같은 분육자에 의해 돼지고기 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도감은 당시에 의례의 주관자로서 고기분배를 통해 이웃과 친족을 하나로 묶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돼지는 똯제를 제외한 무속신앙에서는 금기의 대상이 되곤 한다. 중동지역의 돼지고기 금기와는 달리 제주도는 돼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돼지고기를 항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앙민들은 돼지에 대한 식량자원으로서 비용이 높게 발생하자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신앙에서만 금기하는 부분 금기의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육식의 신들도 하등의 신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제주도 당신의 육식·미식의 식성 갈등 문제가 단지 식성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문화적 원인에 의해서 파생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구비문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민속학적·인류학적·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K C I

참 고 문 헌

『성경』

『후한서』

남도영, 2001,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남제주군, 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마빈 해리스, 2000, 『식인과 제왕』, 한길사.

, 2002,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각.

장주근, 1995,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녕리 궤내기동굴 유적』, 대영인쇄사.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돼지를 통해서 본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

강 권 용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제주도 무속에서 당신(堂神)들이 식성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과 돼지고기 부분 금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식성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헌에 나와있는 제주도 전역의 당본풀이를 살펴보았다. 문헌에 있는 당본풀이를 살펴본 결과 19개 당본풀이에 식성 갈등 화소가 있으며 기존의 남신은 육식, 여신은 미식을 한다는 관념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신의 육식은 임신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돼지고기가 식성 갈등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송당본풀이의 백주뜨와 소천국의 갈등은 단지 두 신이 농경과 수렵의 부산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한 것이 아니라 농경의 상징인 소에 대한 관념의 차이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지닌 신들을 한 마을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갈등의 요소가 내재된 두 신을 같이 모시는 이유는 신들이 단골들의 삶의 부분적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신의 기능이 한정적이라 단골들은 여러 신들을 한 마을에 같이 모시며 필요에 따라 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돼지가 어떠한 위치 변화를 보였으며 무속에서 어떻게 금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멧돼지는 선사시대부터 식용으로 사용되던 동물로써 다른 동물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야생에서 길러지던 돼지는 제주도의 화전농경과 인구의 증가, 생산량 감소의 상황에 돼지 거름을 통한 농업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집의 통시에서 길러지는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육류의 지속적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게 되었다.

제주민과 가까워진 돼지는 일생의례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도감(刀監)이란 돼지고기 분육자에 의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지고 있다. 도감은 무속의례인 돛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돛제는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된 무속의례로 도감은 당시에 의례의 주관자로서 고기분배를 통해 이웃과 친족을 하나로 묶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돼지는 돛제를 제외한 무속신앙에서는 금기의 대상이 되곤 한다. 중동지역의 돼지고기 금기와는 달리 제주도는 돼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돼지고기를 항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앙민들은 돼지에 대한 식량자원으로서 비용이 높게 발생하자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신앙에서만 금기하는 부분 금기의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육식의 신들도 하등의 신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핵심어 : 당신, 식성 갈등, 돼지, 뜻제, 도감, 돼지 굶기

K C I

***Jeju Dangsins* : To like or not to like Pork**

Gang, Gwon—Yong (Researche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the *Jeju* shamanic ritual, the *Dangsins* are continually embroiled in a conflict of foods. This conflict stems from disagreements about pork. The gods like it, but the goddesses don't.

In the *Dang-bonpuri*, there are 19 motifs about this clash, which are handed down in documented forms. However, in the *Songdang-bonpuri*, gods and goddesses don't have a problem eating cows. As pork and beef are both meat, this leads us to reevaluate the notion that gods eat meat, and goddesses eat rice.

It is a frequent practice of a village to worship both gods who eat meat and gods who eat rice. The reason that villagers are able to worship both is because one god is not in charge of the community, as there are various functions that take place within one village. People worship the god from whom they can receive what they need.

We can observe in the course of the *bonpuri* the changing status of the pig, as it gradually becomes a tabooed entity.

Wild boars became a source of food in the prehistoric age. People learned to domesticate these boars; pigs thus came to be raised within the home. Wastes from the pig were used as fertilizer, and this became an indispensable practice in cultivating a slash-and-burn field. The people also ate pork.

Pork was also shared during funeral and marriage ceremonies. The pig was equally divided up by the *Dogam* and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The *Dogam* also took part in the *Dotje*. By promoting this act of sharing, the *Dogam* played the role of strengthening relationships within a society.

But as arable land decreased, the population of wild boars also started to decrease. Thus, in order to lessen the need for pork, religious followers in certain parts of *Jeju-do* decided to taboo pork. As a result, some of the carnivorous gods were relegated to a lower class.

Key Words : *Dangsins*, *Dang-bonpuri*, pig, *Dotje*, *Dogam*, taboo

由猪肉食用禁忌考察济州道堂神的食性矛盾

康 权 用 (国立民俗博物馆研究员)

本文主要考察济州道巫俗中诸多堂神食性矛盾的原因和有关猪肉食用的禁忌。

为解释食性矛盾问题，本文首先查看文献记录中济州道全岛的“堂本解”（巫术行为过程中的念词，一般为致神的解说或祈求神降临的歌词），从中找到19个堂本解中存在涉及食性矛盾的语句，并发现以往研究中提出的“男神吃肉，女神吃素”说法是不正确的。另外由文献还可知，女神吃肉与怀孕有密切关系，在这里位于食性矛盾问题中心的是猪肉；松堂（地名）本解中的男神“小天国”和女神“白珠道”的矛盾，不只是因为食用不同的农耕和狩猎生产副产品，而且更主要是由于对农耕象征物——牛秉持不同观念。

济州道的乡堂（村落祭堂）普遍存在将相互矛盾的神供奉于同一村落内的情况，这是因为任何一个神都只被认为掌控着生活的某一方面，而非全能，人们将诸神供奉于同一村落内，便于根据需要而求相应的专职神。

其次，文中探讨了济州道历史上猪肉食用形式的变化过程以及猪肉成为巫俗禁忌食品的原因。济州道民在史前时代便开始以野猪为食，而且在各类食用动物中占重要比重。进入刀耕火种的原始农耕阶段后，粮食生产一度不能满足不断增长的人口需求，为获得提高农业生产效率的肥料，济州岛民便将野猪转变为家养牲畜，同时也以家养猪为主要肉食。

济州道传统婚礼和葬礼中有由“刀监”把猪肉平均分配给参加仪式的人们的旧俗。这位分肉的“刀监”亦出现于“豚祭”（一种巫术仪式）中。豚祭的历史十分悠久，刀监在其中充当仪式的主持者，他的分肉行为很可能是为了强化邻居或亲族的人际关系纽带。

除“豚祭”外，与济州道民生活密切相关的猪是巫术信仰中的禁忌对象。济州道拥有适宜养猪的自然环境条件，但是生态环境的破坏导致食用猪肉的费用增高，猪肉不再是常见的廉价消费品。因此，济州道大部分地区都在某些场合里把猪作为信仰上的禁忌对象，并视吃肉之神为低等级的神。

关键词：堂神，堂本解，猪，豚祭，刀监，禁忌

この論文は、済州道の巫俗において堂神の間で食をめぐる葛藤を引き起こす原因とともに豚肉に対する禁忌を調べてみたものである。

まず、食をめぐる葛藤という問題にあたっては関連文献を通して済州道全域にわたり堂本プリを調べてみた。その結果、19の堂本プリから食をめぐる葛藤がみられ、男の神は肉食、女の神は米食をするという従来の観念が間違っていることが判明された。そのほか、女の神において肉食は妊娠と深くかかわりがあり、豚肉が食をめぐる葛藤において中心に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また、ソندان本プリにおけるバクジュウタと小天国との間の葛藤は、ただ二つの神が農耕と狩猟の副産物を取ろうとしたことからではなく、農耕の象徴である牛に対する観念の違いから生じたのである。

一つの村がそのような葛藤に置かれている神を捧げる場合が多い。葛藤のある二つの神を捧げる理由は神がタンゴルの暮らしにおいて部分的機能のみを担っているからである。神の役割が限定的であるために、タンゴルは多くの神を一つの村と一緒に捧げ、必要に沿って神を探し求める。

次に、済州道において豚がどのような位置であり、巫俗においては禁忌の対象とされたわけを探ってみた。

済州道の猪は先史時代から食用としての動物であって、ほかの動物に比べて大事なものとされてきた。野生で養われてきた豚は、済州道における火田農耕の進めと人口の増加、生産高の減少という状況下で豚肥やしを通じた生産高の増加を目指して家の手洗い[トシ]で養われるという変化が起きた。そして、それが肉類の持続的供給源としての役割もともに可能となった。

済州島では豚が住民と親しむことになったために、結婚式や葬儀で刀監という豚肉が参加者に等しく配られる。刀監は巫俗儀礼であるドッセにおいても見られる。ドッセは、その淵源が相当古い巫俗儀礼で、刀監は当時儀礼を主管し、肉の分配を通して隣人と親族を一つとする、いわば社会的紐帯を強化させる役割を果たしただろう。

そのように、済州島の住民と深く関わっていた豚は、ドッセ以外の巫俗信仰においては禁忌のものとなりがちであった。中東における豚肉の禁忌とは異なり、済州道は豚が養われる環境的要素を整っているが、棲息環境の破壊により豚肉をいつも活用できる状況ではなくなった。そのために村人は豚に対する食糧資源としての費用が増やしていくにつれて、一部の地域を除いて殆どどの地域でも豚肉を信仰としてのみ禁忌するという部分禁忌のものとなった。そして肉食の神も下等の神と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堂神、堂本プリ、豚、ドッチェ(豚祭)、刀監、禁忌